

# 교양 초급중국어 국제어 강의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강용중\*

## <目 次>

1. 서론
2. 연구방법
3. 교양 중국어 국제어 강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4. 결론

## 1.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은 영어를 필두로 제2외국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법은 제2언어 습득에서 원어강의를 통해 교과서 이외의 부수적인 언어 학습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외국어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교양중국어 교과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국제어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대학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학에서 운용가능한 중국어 국제어강의를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국제어 강의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외국어 교육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어의 경우 전공수업에서 부분적으로 국제어강의가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양과목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내실화하여 상응하는 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대학교의 교양과정에서 국제어 강의를 공식적으로 확장한 시기는 최근의 일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어 강의가 정형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의 중국어 교육(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교양 초급중국어 국제어 강의에 대한 조사 연구는 대학의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와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의 중국어 국제어강의에 필요한 콘텐츠는 일차적으로 교실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안과 '수준별 교실중국어'의 개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학의 실정에 맞는 콘텐츠가 마련된다면 중국어 국제어강의의 내실 있는 기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양 중국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어강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적 난관을 정면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중국어 국제어 강의의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되고 수행되었다. 필자는 그간 교양중국어 교과와 원어강의 모델을 연구해 왔고,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교실중국어'를 개발하는 한편 전공과목의 원어강의, 원어민 교수자의 중국어 원어강의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방면에서의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에서의 교양중국어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강생 설문을 다룬다. 학생들의 교양중국어 교과와 원어강의에 대한 인식과 고민, 그리고 의견을 통해 교육종사자는 물론이고 대학 당국이 이를 계기로 의미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방법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 학습 이론에 따르면 목표어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이 제 2언어 습득에서 의사소통기능의 제 측면에서 부수적인 학습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다. 현재 우리 대학사회의 주요 화두인 국제어 강의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확장되고 재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법이 유럽에서 처음 제기되고 운용된 배경은 영어에 노출되기 쉬운 언어 환경을 전제로 일정 정도의 영어 구사능력을 가진 학습자가 더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설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예로 들면 대학의 경우 영어 학습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적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영어 국제어 강의를 시행한다면 의사소통중심의 교수 방법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반면 중국어와 같은 제2외국어 영역은 영어의 지위와는 다른 출발선에 있다. 즉 대학에서 영어의 학습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제2외국어의 경우는 대부분 초급과정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학생들의 제2외국어 능력이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초급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제2외국어 능력은 '0'(zero)에서 시작하므로 국제어 강의를 시행할 경우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어와 같은 제2외국어의 국제어강의는 영어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영어 국제어 강의와 비교할 때 중국어 국제어 강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학생들의 중국어 능력이 현저히 낮으므로 교재나 교안의 준비와 구성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모든 내용', '초, 중급 중국어 언어지식 전달용 전문용어', 수업진행용 중국어표현 즉 '교실중국어' 등을 사전에 제작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학습의 유무에 따라 수준 차이가 영어에 비해 더 현저하므로 평가 방법에서 상대평가 비율의 조정등과 같은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교수자의 경우 규범적이고 정형화된 교실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실중국어와 국제어 강의용 교재 및 교안은 이상의 중국어 국제어 강의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들은 강의 전에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국제어 강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수업 내용의 이해 가능성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제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제어 강의용 매뉴얼을 통해 인지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제거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의 교양중국어 국제어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근거해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7차례에 걸쳐 교양중국어 수강과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의 항목은 앞에서 정리한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우선 국제어 강의에 필요한 매뉴얼을 물었고, 그 배포시기에 대해서도 설문했다. 수업 진행용 교실중국어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수의 응답을 받았다. 이어서 국제어 강의의 필수적인 요건을 수업 환경과 관련해 설문했다. 교수자의 사용 언어에서 우리말과 중국어의 비율을 물었다. 그리고 원어강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교양 중국어 과정의 국제어 강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 설문 항목은 수량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국내에는 유사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과 제2외국어 교양 기초 과정의 교수법 설문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서술형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어 수업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향후 연구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참고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7차례 걸쳐 진행되었으며, 시간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로 동태적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의 제2외국어 교육 환경이 날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속적인 설문자료의 축적은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적 수요를 읽고 예측하게 해 줄 것이다.

### 3. 교양 중국어 국제어 강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과과정의 정책결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만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교육과정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8년 교내 교수법 개발과제 참여 이후로 매년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교수법(국제어 강의 관련 내용 포함) 설문을 실시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수행과정을 포함해 교양과정의 설문을 실시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 1차. 2008년 1학기 기초중국어1 수강생 120명 대상 교수법 설문(국제어 강의 포함)
- 2차. 2008년 2학기 기초중국어1 수강생 40명 대상 교수법 설문(국제어 강의 포함)
- 3차. 2009년 1학기 기초중국어1 수강생 38명 대상 교수법 설문(국제어 강의 포함)
- 4차. 2009년 2학기 기초중국어2 수강생 34명 대상 교수법 설문(국제어 강의 포함)
- 5차. 2011년 1월 기초중국어1,2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 11명 대상 국제어 강의 관련설문
- 6차. 2013년 10월 기초중국어1을 수강 중인 학생 22명 대상 국제어 강의 관련설문
- 7차. 2014년 5월 기초중국어2를 수강 중인 학생 15명 대상 국제어 강의 관련설문

우선 교양과정 기초중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국어 선행학습 유무를 조사한 결과 2008년 25%, 2009년 31%만이 학습경험이 없었다. 이 결과는 교양과정의 대부분의 기초중국어 수강생이 이미 선행학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초중국어를 원어로 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결과(2008년 1차)는 다음과 같았다.

- ①매우 그렇다(4.8) ②그렇다(32.3) ③아니다(40.0) ④전혀 아니다(22.9)

동일한 질문의 2009년 3차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매우 그렇다(7.9) ②그렇다(15.8) ③아니다(34.2) ④전혀 아니다(42.1)

이상의 두 차례 설문은 기초중국어1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으나 다음의 2009년 4차 설문은 기초중국어2를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①매우 그렇다(14.7) ②그렇다(38.2) ③아니다(35.3) ④전혀 아니다(11.8)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기초중국어1의 국제어 강의는 많은 저항감을 나타냈으나, 이미 기초중국어1을 이수한 기초중국어2의 수강생들은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간고사 이후 회화학습 시간에 한정하여 부분적인 국제어 강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보기로 하자.

2008년 1차: ①매우 필요(6.7) ②필요(66.7) ③불필요(20.9) ④전혀 불필요(5.7)

2009년 3차: ①매우 필요(13.1) ②필요(63.1) ③불필요(13.1) ④전혀 불필요(10.5)

2009년 4차: ①매우 필요(29.4) ②필요(64.7) ③불필요(5.9) ④전혀 불필요(0.0)

이 결과에서 보이듯 제한적인 국제어 강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며, 특히 기초중국어2 수강생의 경우 다른 설문과 달리 '매우 필요'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전혀 불필요'가 0%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차 설문은 기초중국어를 2010년 2학기 이전에 이미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 11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중국어 과목을 이수하고 중문과에 전공 진입한 경우로 1학기 이상 원어강의를 들었다. 한편 이어진 6,7차 설문은 각각 2013년 10월 기초중국어1과 기초중국어2를 수강 중인 22명,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6,7차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교양 과정 중국어 원어강의를 수강 중이다. 이 5차와 6차 및 7차의 설문지는 동일하다. 설문 방식은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닌 복수 응답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서도 중요도의 순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 기초중국어 1, 2의 국제어 강의(중국어원어강의)의 시행에 필요한 매뉴얼은?(복수 응답 가)

순위	2010년	2013년	2014년	내 용
1	45.45%	26.83%	33.33%	국제어 강의에 맞게 제작된 교재
2	18.18%	26.83%	37.03%	교실중국어
3	18.18%	34.14%	22.22%	교실중국어 음성파일
4	18.18%	12.19%	7.41%	국제어 강의용 교안

결과에서 보듯 2010년 설문에서는 ‘국제어 강의에 맞게 제작된 교재’가 가장 중요한 매뉴얼로 지적되었다. 이는 현재 시중에 이러한 교재가 없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고 국제어 강의의 관건인 교과내용의 사전 제시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2013년 설문에서는 ‘교실중국어 음성파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매뉴얼로 지적되었다.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매뉴얼로는 ‘국제어 강의용 교안’이다. 2014년의 결과는 2013년의 그것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2. 상기 매뉴얼은 언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순위	2010년	2013년	2014년	내 용
1	72.72%	26.09%	80.00%	학교 학습포털에 상시 제공
2	18.18%	52.17%	6.67%	수업시간에 수시로
3	9.09%	21.74%	13.33%	수강신청 기간

2010년과 2014년의 설문에서 국제어 강의용 매뉴얼의 제공 방식으로는 '학습 포털'이 단연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한편 2013년 설문에서는 수업시간에 수시로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원어강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포털에 상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3. 교실중국어는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할까?(복수 응답 가)

순위	2010년	2013년	2014년	내 용
1	36.36%	31.82%	34.38%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제작하여 제공
2	31.81%	29.54%	31.03%	한어병음을 부기하여 편의성 도모
3	22.72%	13.64%	13.79%	수업에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 중심으로 편집
4	9.09%	25.00%	20.69%	수업의 여러 상황을 분야별로 편집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교실중국어는 수준별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급반의 특성을 반영하듯 한어병음을 부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실중국어의 내용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에 공식적으로 공개되거나 출간된 교실중국어 자료가 많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이 실물을 보고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 필수적인 요건은?(복수 응답 가)

순위	2010년	2013년	2014년	내 용
1	21.87%	24.53%	17.95%	수강인원 30명 이하 제한
2	21.87%	22.64%	20.51%	상대평가 비율 조정(A+,A,B+,B-90%)
3	18.75%	16.98%	25.64%	이론과 회화의 Team-Teaching
4	15.62%	9.43%	7.76%	국제어 강의 매뉴얼의 사전 제공
5	15.62%	24.53%	20.51%	원어민 강의조교(TA) 활용
6	6.25%	1.89%	7.69%	주당 수업시간(현재 3시간)의 확대

2010년 설문의 결과로 볼 때 1에서 5순위의 상대비율은 대동소이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들 요소의 중요성은 그 결과에 보이는 만큼 다 지켜질 수 있다면 좋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2013년과 2014년 설문 결과의 특징은 원어민 강의조교(TA)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과 주당 수업시간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속해있는 B대학의 경우 이론과 회화의 팀티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원어민 강의조교(TA)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이미 교양 중국어 수업 시수를 주당 5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확대에 대해서는 2% 이하(2014년은 8% 이하)의 의견이 나왔다.

5.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서 교사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복수 응답 가)

순위	2010년	2013년	2014년	내 용
1	47.05%	48.57%	33.33%	수준별 교실중국어에 한하여 원어 사용
2	35.29%	20.00%	30.00%	정확한 전달(시험, 과제 등)을 위해 10% 이내로 우리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3	11.76%	31.43%	26.67%	기본적인 중국어 표현에 한하여 원어 사용
4	5.88%	0%	10.00%	학생들이 원어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100% 원어로 진행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동일하게 전면적 국제어 사용에는 부정적인 반면, 부분적인 사용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본적인 중국어 표현에 한하여 원어 사용'한다는 항목에서 세 설문 결과가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0년의 경우 이미 전공 진입을 한 학생들이고, 2013년과 2014년의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수강 중이어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6. 교양과정 기초중국어 1, 2의 국제어 강의(원어강의)의 시행에 대한 견해는?

순위	2010년	2013년	2014년	내 용
1	63.63%	65.22%	50.00%	부분적으로 회화 수업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27.27%	4.35%	35.00%	국제어 강의용 매뉴얼이 있다면 시행해도 무방하다.
3	9.09%	26.09%	10.00%	기초중국어 1은 우리말로, 기초중국어 2는 국제어로 진행할 수 있다.
4	0.0%	4.35%	5.00%	중국어가 제2외국어이므로 필요 없다.

2010년의 설문결과는 국제어 강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으로는 부분적인 시행에 호의적이라는 것이며, 3항에 가까운 학생들은 국제어 강의용 매뉴얼이 있다면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설문의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초중국어1은 우리말로, 기초중국어2는 국제어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다수의 응답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징적인 것은 2010년의 설문조사와 2014년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2013년만이 초급과정이고 나머지 두 설문은 중급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설문은 서술형이다.

7. 기타 교양과정 중국어 국제어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이 항의 설문 결과는 2010년의 학생 구성과 2013년 및 2014년의 학생 구성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는 2010년 설문 결과이다.

1). 교양과정 중국어 수업의 경우 인문과학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 전공 진입 결정을 위해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어가 아닌 강의에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선뜻 수강신청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국제어로 강의된다면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참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국제어가 아닌 강의를 신청하게 되겠지만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양을 위해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인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제한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양 중국어 국제어 수업을 신청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회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네요.

3). 회화 수업이 부족한 대학 강의에서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어 강의의 경우는 국제어에 이미 능통한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적 비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강의 개설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중국어 1처럼 중국어 국제어 수업도 화교나 중국 학생의 수강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교양과정에서 중국어 국제어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으나, 두려운 점은 학생들이 국제어강의라고 하여 강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평가제도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공이 중어중문학과

인 학생들에게도, 일반교양으로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전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제가 수강한 기초중국어2 수업은 국제어강의가 아니었으나, 교수님께서 수업진행을 하실 때 원어를 많이 써주셨고 (다소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은 한국어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수강하던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는 원어가 수업분위기를 더 “중국어”수업답게 실감나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제어 기초중국어2 수업이 더 개설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기초중국어 이외에, 중급 혹은 고급 중국어수업이 교양수업으로 생긴다면, 더 많은 학생이 중국어를 주전공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더 심도 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에, 교양과정의 중국어 수업이 더 체계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6). 수준별 수업에 맞춰서 학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중국어전공생이 아닌 1학년생으로서 100% 원어국제어강의를 듣는다면 다소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국어 이론과 같은 복잡한 부분은 한국말로 보충설명하시면서 국제어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학기 교수님의 수업 때 김로 학우<sup>1)</sup>님의 원어발음을 들어가며 수업한 결과 중국어, 특히 발음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국어 국제어 강의가 진행된다면, 중국어 교수님께서 중국어 원어민 조교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인 중국어 국제어강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설문의 서술형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4에서 보듯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해주기를 바라기도 했고, 1과 3에서는 중국인이나 화교학생의 배제를 건의하

---

1) 자원하여 필자의 수업을 청강한 중국학생으로 수업의 보조역할도 함.

기도 했다. 5번의 '기초중국어 이외에, 중급 혹은 고급 중국어수업이 교양수업으로 생긴다면'이라는 제안은 심도 있게 고민하여 과목개설에 반영할 수 있다. 7에서는 중국유학생 튜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2013년에 조사한 교양 원어강의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다음과 같다.

8). 학생들의 언어 구사 실력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처음 수강 신청할 때 단일 과목으로 신청을 받은 뒤, 분반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수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9). 제가 다른 언어(스페인어)도 교양으로 듣고 있는데 그쪽 수업에 비해 내용이 쉽고 기초적이예요. 스페인어는 일주일에 단어 50개씩 외우고 서로 회화 연습도 하고 심도 있게 진행된 반면 중국어는 좀 널널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중국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급이라도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할 것 같아요.

10). 이론/회화 team-teaching을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부작용을 없애고 교육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진도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 내용을 교차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강의자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11). 언어학습, 특히 중국어는 발음상에 '성조'라는 특이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초 중국어 수업은 발음교정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교사의 올바른 교정 및 학생들이 발음 연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MP3 등 오디오 매체들이 제공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리라 본다.

12).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학점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평가 제도로 운영한다면 보대 활발하고 좋은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3). 수준별로 중국어 실력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수업은 교양중국 어 초급이므로 실력이 높은 학생일지라도 똑같이 과제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14). 중국어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이미 시작한 사람이나 적응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발음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며, 곁들여 추가 적으로 흥미를 지속시킬 중국드라마, 중국 영화 시청 내지 대본을 통한 학습 등의 요소를 첨가하면 더 좋다.

15). 수준별로 다른 수업을 하는 것도 낫지만, 중국어를 많이 한 사람도 기초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초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16). 응용을 많이 해 볼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100% 중국어 강의는 처음 배우는 입장의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멘붕을 선사할 것 같다.

17).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어로만의 진행은 초급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초급반은 반반, 중급반은 원어로의 진행이 좋은 것 같습니다.

18). 수준에 따른 교재 사용과 수업내용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19). 교재 자체가 난이도의 변동 폭이 매우 커서 과를 끝마칠 때마다 힘든 점이 많습니다. 또한 저같이 중국어 학습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원어강의를 듣는 것이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큰 중국어 실력 차이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 기초과정에서부터 바로 원어강의가 시작된다면 중국어와 더욱 친근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보다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초를 배우

고 익히는 과정에서 원어강의는 학생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기초 공부를 쌓아가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급 과정이나 그 이상에서는 회화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 위주의 강의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1). 회화와 이론 수업이 따로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다. 초급 학생의 접근성을 위하여 교안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만 중국어를 사용해야 좋을 것 같다. 회화를 억지로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중국어의 기본적인 레벨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수는 5시간으로 하되, 학점을 노력한 정도를 반영하는 절대평가를 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것 같다.

22). 전공이 중국어도 아니고, 교양 중국어 초급 강의에서 원어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요건 때문에 듣는 학생이 아니라면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것인데 원어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3). 원어강의라 하더라도 초급의 경우에는 원어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빈도를 늘리면 좋다고 생각한다.

2013년 설문에서 우선 원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반응이 잘 드러난 것은 12, 16, 19, 20, 22 등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원어강의에 대한 극도의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준별 원어 수업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행학습이 있는 학생들과의 수준차이가 성적이거나 수업을 따라가는 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절대평가 등 수업의 부담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까지도 요구하고 있었다. 9와 10은 원어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선 9에서는 제2

외국어 교양 과정이라 하지만 교수자에 따라 수업목표를 높게 잡은 경우가 있으며, 일부 학생들 특히 선행학습이 있는 경우 중국어 수업에서 좀 더 심화된 수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학생의 경우 외교에서 3년간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다. 물론 교양 초급과정은 ZERO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학생의 수준과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중국어 선택비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설문을 시행한 B대학의 경우 이론과 회화를 두 교수자가 팀티칭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10번의 경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며 교수자는 이 점에 응당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4년의 서술형 응답은 아래와 같다.

24). 국제어 수업은 어느 정도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초급중국어 첫 시간에 4성을 배운 뒤 그 자리에서 병음을 읽도록 강요했다. 수업 구성원 대다수는 미리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겐 당혹스러웠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교차해서 말씀해 주시면 중국어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이해도 쉬울 듯하다.

25). 중급부터는 원어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26). 우선 학생 수준에 맞춰서 원어 사용 비중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제가 초급 수준이라서) 현재의 랩(lab) 수업 중 7~80%는 이해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급급하기보다 천천히 다뤘으면 좋겠다.

27). 수준별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중국어부터 100% 원어 진행으로 나뉘어야 한다. 초급의 경우 기본적인 중국어만 사용하고, 중급에서는 우리말을 10% 사용하며, 고급에서는 전체를 원어로 진행할 수 있다.

28). 교실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준 정도(예를 들면 ‘질문 있나요?’, ‘이해했나요?’ 등)는 반복하다 보면 학생들도 귀에 익어서 괜찮을 듯하다. 원어사용 비율을 점차 늘여 가면 부담이 덜 될 듯하다.

29). 국제어 수업용 교재가 있어 그 교재를 충실하게 활용해 초급자들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30). 한국어와 중국어의 전달력을 위해 국제어 수업을 진행하여도 원어민 보다는 한국인 교수님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수준차이를 감안하여 원어강의용 매뉴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원어로 한 마디 해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은 한국어로 반복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32). 더욱 세분화된 수준별 분반이 필요하다. 초·중급 반 내에 수준별 차이가 많이 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국에 살다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원어강의도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3). 초·중급 수준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원어강의를 시행하는 것은 다소 효율적이지 않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원어 사용 비율을 조금씩 높이는 것이 좋다.

34). 원어강의에서 언어적인 내용 이외에 역사 문화적 콘텐츠도 많이 다루면 좋겠다.

2014년 설문조사의 대상은 15명이나 원어강의와 상관이 없는 네 항목은 배제한다. 이 설문에서 우선 수준별 분반을 주장한 경우는 24, 32 등이다. 그리고 부분

적으로 원어강의용 교재를 주문하거나(29), 교실중국어를 포함하여 원어강의용 매뉴얼이 필요하다(30)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다수의 의견으로는 주로 전면적인 원어강의에 반대하고 부분적 또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28, 33). 강의언어에서 한국어 사용이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24, 25, 26, 30)도 원어강의의 점진적 적용을 주장하는 의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30에서 보듯 제2외국어인 중국어의 원어강의에 원어민 보다 한국인 교수자를 선호한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는 아마도 학생들의 원어 능력이나 교과과정 자체가 초급 수준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 4. 결론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초급과정 '기초중국어1'의 전면적인 국제어 강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회화부분에 한정된 국제어 강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초급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기초중국어2'의 전면적 국제어 강의는 부정적 반응보다 긍정적 반응이 더 많았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교양 중국어(또는 제2외국어) 국제어 강의의 시행은 국제어 강의용 매뉴얼의 개발과 직결된다. 현재 국내에는 200여 종의 중국어 초급 교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소개한 국제어 강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단 1종도 없었다. 이에 필자는 그간 국제어 강의에 부합하는 교실언어, 국제어 강의용 교재 형태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이러한 형식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국제어 강의의 전형화를 통한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이외의 제2외국어 과목, 나아가 영어의 국제어 강의에까지 확장하여 대학에서의 교양과정 중국어 국제어 수업의 모델을 개척하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상의 요목을 정리하여 7차례에 걸쳐 설문을 시행하여 의미 있는 여러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효율적인 중국어 국제어 강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목표와 학생들의 요구를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제어 강의에서 간과한 국제어 강의용 교실언어, 교재, 교안 등을 정책적으로 선별, 지원, 육성, 제작하여 국제어 강의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어 강의용 교실언어(중국어 이외의 제2외국어 및 영어)를 수준별로 작성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로 개발한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대학교육개발센터의 스튜디오에서 음성파일로 만들어 교내 학습 포털에 게시하거나 수강 전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교재의 경우 현재 국제어 강의용 전 문서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 교재의 체제에 따라 국제어 강의용 보충교재를 개발한다. 그리고 핵심(중점) 교과와 경우 지금부터라도 교재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의 기초 작업이 착실히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일반적인 대학 교양과정의 기초중국어 과목은 다수가 개설된다. 설문을 실시한 학급은 '기초중국어1'이며, 2008년 이후 매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면적인 국제어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으나, 중간고사 이후의 회화 학습 부분의 국제어 강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전체 교과에 대한 부분적인 국제어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중국어2'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면적인 국제어 강의에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중국어1' 등의 선행학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국어 국제어 강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국제어 강의는 수강 학생이나 교수자 모두 준비와 적응에 시간적 부담이 생기며 이는 참여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모델을 창출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서도 특화된 대안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업 부담과 관련해 상대평가의 비율을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초중국어'의 경우 실습과목으로 할지 아니면 이론과목으로 할지를 선택해 최대 수강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상대평가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교수자의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국제어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부분적인 회화과목의 경우 외국인 교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과목을 내국인이 진행하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행 대학의 교양 중국어 과정은 주당 3시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수가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팀티칭 시행 정책을 유도하여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늘이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원어민 튜터(강의조교)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는 많은 중국 유학생이 있다. 우선 중국 국적의 중문과 대학원생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2학기 이상 등록한 우수 중국 유학생을 중국어 국제어 강의 튜터 인력풀에 편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동기도 유발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수혜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들의 생활지도나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도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필자는 강의 중에 중국 유학생을 튜터로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강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학습효과가 현저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와 제언이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의 국제어 강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부록(설문지): 교양과정 기초중국어1, 2의 국제어 강의 설문

1. 교양과정 기초중국어1, 2의 국제어 강의(중국어원어강의)의 시행에 필요한 매뉴얼은?(복수 응답 가)

①교실중국어

②교실중국어 음성파일

- ③국제어 강의용 교안      ④국제어 강의에 맞게 제작된 교재

2. 상기 매뉴얼은 언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①학교 학습포털에 상시 제공   ②수강신청 기간   ③수업시간에 수시로

3. 교실중국어는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할까?(복수 응답 가)

- ①수업에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 중심으로 편집  
②수업의 여러 상황을 분야별로 편집  
③한어병음을 부기하여 편의성 도모  
④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제작하여 제공

4.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 필수적인 요건은?(복수 응답 가)

- ①국제어 강의 매뉴얼의 사전 제공  
②이론과 회화의 Team-Teaching  
③원어민 강의조교(TA) 활용  
④주당 수업시간(현재 3시간)의 확대  
⑤수강인원 30명 이하 제한  
⑥상대평가 비율 조정(A+, A, B+, B-90%)

5.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서 교사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복수 응답 가)

- ①기본적인 중국어 표현에 한하여 원어 사용  
②수준별 교실중국어에 한하여 원어 사용  
③정확한 전달(시험, 과제 등)을 위해 10% 이내로 우리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④학생들이 원어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100% 원어로 진행

6. 교양과정 기초중국어1, 2의 국제어 강의(원어강의)의 시행에 대한 견해는?  
(복수 응답 가)

- ①이론 과목의 경우 이해가 중요하므로 필요 없다.
- ②회화 수업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3학년 이후에 국제어로 진행할 수 있다.
- ④국제어 강의용 매뉴얼과 교재가 있다면 시행해도 무방하다.

7. 교양과정 기초중국어1, 2의 국제어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參考文獻〉

《교수법 가이드 - 최고의 강의를 위한 지침 40선》,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2007.  
《영어강의 핸드북》,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2007.  
강소연, 〈공학 전공과목의 영어 강의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 Vol.11, No.1, 2004.  
강소연, 박혜선, 〈공학 분야에서의 영어 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에 대한 기초 연구〉, 《공학교육연구》, Vol.7, No.1, 2004.  
김규현 · 서경희 · 박용예,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몰입학습 프로그램 실시 방안 연구〉, 《영어교육》, Vol.55, No.2, 2000.  
김남순, 〈초등 영어 교사의 교수 담화 책략〉, 《영어교육》, Vol.53, No.1, 1998.  
김두식, 〈영어전용강좌를 위한 “학술적 교실강의 영어”의 적절한 용법 연구〉, 《언어과학연구》, Vol.47, 2008.  
김명환, 〈시평: 대학의 영어 강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Vol.22, 2007.  
문혜진, 〈2008년 영어강의 교수법 세미나: Lecturing in English: Tips & Expressions〉,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2008.  
박덕재, 〈교실영어의 담화 화용론적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Vol.26, 1997.  
박덕준 · 정동수 · 최병진, 〈교실용어〉, 《고등학교 중국어2 교사용지도서》, 정진출판사, 2005.  
박민정, 〈원어민/비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 -English Only Class에서의 비원어민 교사의 가능성-〉, 《인문학연구》, Vol.12, 2007.  
박상욱, 〈영어교육에 있어서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Vol.51, No.1, 1996.

- 선규수·조초희(1999), 〈교실영어 사용 전략〉,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4, No.2.
- 성지희·길형석, 〈교실영어에 대한 대학교 1학년 영어학습자들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7, No.1. 2007.
- 송승철, 〈영어강의를 말한다: 영어수업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Vol.9, 2000.
- 송영수, 〈대학 영어전용강좌(EMI)의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IPP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14, No.3, 2008.
- 이연호, 〈정치학 영어 강의: 국내 학생들의 영어수업〉, 《한국정치학회소식》, Vol.29, No.2, 2005.
- 이재희, 〈초등 교사 교실 영어의 오류와 개선 방안〉, 《영어교육》, Vol.54, No.4. 1999.
- 이준식, 박정구, 강용중, 〈의사소통기능 제고를 위한 기초중국어 교수 모델 개발-기초중국어(1) 교수법 개발〉, 《2008년도 전공별 교수법 개발 연구논문집》,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2009.
- 장복명, 〈비원어민 영어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 분석〉, 《현대영어교육》, Vol.5, No.2. 2004.
- 정이화, 〈영어강의를 말한다: 영어원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Vol.9, 2000.
- 강용중, 〈초급중국어과정 원어강의용 ‘교실중국어’ 개발〉, 《중국언어연구》, 제29집. 2009a.
- 강용중, 〈교양중국어 원어강의의 새로운 전형 모색〉, 《중어중문학》, 제44집. 2009b.
- 강용중, 〈조선시대 역학서를 통해 본 중국어 분류어휘 교육의 의의-《노걸대》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2집. 2010.
- 한국교육개발원,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1997.
- \_\_\_\_\_,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1997.
- \_\_\_\_\_,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모형 및 교실영어》, 연구보고서. 2000.
- \_\_\_\_\_, 《교실영어》, 연구보고서(자료집). 2000.
- 劉 弘, 〈論對外漢語教師課堂用語的語言變異〉, 《語文學刊》, 第16期. 2007.
- 金志軍, 〈對外漢語教師課堂用語的語言變異及其語用意義〉, 《科教文彙》, 第9期. 2007.
- 姜麗萍, 《教師漢語課堂用語教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6.

〈中文提要〉

现在“教养中国語”的普遍教育方式是用韩语教汉语,但是部分学校已经采取或者准备用汉

语教汉语的双语教学模式。不过在韩国的汉语教学的客观情况来看，全面实行汉语双语教学是比较困难。那麼，我们怎麼去设计并准备汉语双语教学？

就此，本文进行了问卷调查。调查一共进行了七次，分别为2008年两次，2009年两次，2010年，2013年以及2014年各一次。调查结果显示，大部分学生不同意在<教养汉语1>全面推行双语教学，而主张按水平逐步推行双语教学或者<教养汉语2>以后采取双语教学。

本文希望，这篇文章在同行们准备和推行教养中国语的双语教学时，能够引起注意，同时希望在向後更具体的实践和讨论上，成为一个基础研究成果。

關鍵詞：教养中国语，汉语双语教学，课堂汉语，双语教学，问卷调查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